

誌 上 公 聽

石油協會

「할 일」을 다하고 있는가

大韓石油協會는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통해 石油産業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石油協會는 ① 石油産業 시책운영에 도움이 되는 石油業界의 의견을 집약, 조정, 건의하고, ② 국내외 石油産業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분석, 보급하며, ③ 石油産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등을 그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石油協會가 발족된지 2년이 되고 있다. 과연 石油協會는 「할 일」을 다하고 있는가. 창립 2년을 맞아 石油協會에 대한 솔직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알아본다. (編輯者註)

會員社 위에 君臨해서는 안돼 「에너지 자료의 메카」가 되었으면

李 彰 圭 (油公 業務開發部)

우리 나라의 石油産業은 야누스의 얼굴같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우선 石油産業은 産業社會의 주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國家의 基幹産業으로 國民經濟에 至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미더운 맏아들」이다.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政府는 최우선 사업으로 精油工場을 建設하였고, 韓國의 經濟成長을 상징하는 弘報物이나 심지어 初中高生들의 教科書에 까지 ulla란 上압증류탑을 위시한 精油工場의 全

景이 韓國經濟의 表象처럼 소개가 되고 있음에서도 우리는 石油産業이 國民經濟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잘 알 수 있다.

이같이 그 중요성이 지대한 石油産業을 이 땅에 정착시키는 데 우리는 국제석유자본(Major)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고, 弱者로서의 실용도 많이 받았다. 더우기 이 때문에 石油産業은 言論과 國民에게 심지어 買辦性向이 있는 것 같이 오도되었고, 油價引上이 物價를 先導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왔다. 그리하여 오늘날 石油産業은 「미더운 맏아들」로서의 모습과 「미운 오리새끼」의 兩面性을 보이게 되었고, 國民들에게는 「미운 오리새끼」의 모습이 오히려 크게 부각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선 石油協會는 國民들의 의식속에서 이같은 不信과 誤解를 씻어 내어 石油産業이 그 본연의 모습인 「미더운 맏아들」의 모습을 되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石油를 아깝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스스로의 image-making에 힘쓸 수 밖에 없는 것 같이 현재의 상황은 精油社들의 獨自의 行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서 石油協會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격적인 弘報活動이 실

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石油協會는 業界와 政府와의 效果的인 橋梁 役割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業界의 意見を 集約·調整·建議하여 業界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며, 政府에서 委任한 業務도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원래 協會와 같은 중간 위치의 기관은 그 性格上 양쪽에서 모두 불평을 들을 수 밖에 없는 곳이다. 統制권이 없으니까 精油社들의 협조가 제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그렇다고 協會가 官僚的 傾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協會는 會員社의 利益을 위해 存在하는 것이지 會員社 위에 君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즘 일부에서 協會의 官僚化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소리가 들리는 데, 물론 精油社들도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어야 되겠지만, 協會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石油協會는 그 調査業務를 강화해야 한다. 國內의 모든 자료를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는 協會單位의 國際間 協力の 폭을 넓혀 國外的 정보수집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外國의 油價制度, 石油類 消費構造, 油種間 價格體制 등의 자료 수집에 있어 우리는 많은 애로사항을 느껴왔고, 이런 것들은 출판물에 의한 간접적 방법보다는 자료교환 등 協會單位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이렇듯 協會는 國內外를 통해 다각적인 노력으로「에너지 자료의 메카」가 되어 會員

社와 政府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石油은 70년대 말을 기점으로 그 위치가 흔들리고 있으며, 각국은 石油依存度を 낮추고 새로운 에너지源 開發에 힘쓰고 있다.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이 땅의 精油社들이 主에너지 供給者로서의 그 위치를 고수할

수 있도록, 協會는 精油業界를 先導하여 新開發 事業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창립 2주년을 맞는 石油協會의 무궁한 발전을 빌며, 앞으로 이러한 점 들을 개선하여 會員社를 위한 會員社의 協會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業務處理에 公正·과감하여야 하고
會員社와 同苦同樂하도록**

朴 炳 天 (湖油 業務部)

먼저 石油協會 創立 2周年을 眞心으로 祝賀드린다.

石油은 그 使用의 便利性和 相對的으로 低廉한 價格때문에 널리 使用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경우 經濟開發 5年 計劃을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爲해서는 精油産業의 育成이 필수불가결하게 先行되어야 한다고 判斷, 1964年 油公의 울산정유공장 日産 3萬 5千 배럴의 稼動을 先頭로 하여 1982年 現在 5個 精油会社와 日産 原油精製能力 79萬 배럴이라는 大規模의 施設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한편 1981年度 우리의 精油産業이 우리나라 全体 에너지에 차지하는 比重이 약 57%나 되었으며, 원유수입 代錢이 약 70億달러나 되었다는 것만 보아도 石油이 우리 經濟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 精油産業의 重要도와 歷史에 비해 石油協會가 1980年 9월에 發足한 것은 조금 늦

은 감이 있지만, 精油産業의 健全한 發展과 會員社 相互間의 긴밀한 協調를 爲해 참으로 多幸한 일이라 하겠다.

지난 2年동안 石油協會는 石油와 관련된 各種資料, 石油協會報 및 石油年報 등의 發刊, 石油製品輸入推薦, 市場正常化에 關한 不斷한 努力等 比重이 크고 多樣한 業務를 成功的으로 遂行해 왔다.

앞으로 石油協會의 業務는 規模面이나 重要性에서 점차 확대되어져 갈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개인적인 바람을 적어본다.

첫째, 石油協會는 精油業界의 經營상 高층을 政府에 알리고, 그 해결방안을 수립하여 政府에 건의하여야 하며, 油價自律化 및 石油製品 輸入自律化에 대비, 能動的인 업무자세를 갖추었으면 한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換率上昇, 最近에 계속된 不景氣로 인한 石

油製品 需要의 不振, 에너지 消費節約 等으로 우리 精油業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81年度에는 5조 7천억원의 賣出額에 17,546百萬원에 達하는 損失을 보았는데 이는 拂入資本金의 約 11.9%, 賣出額의 0.3%에 해당하는 것이다. 石油協會는 會員社의 이런 經營上의 高층을 精確하게 分析하여 政府에 建議, 반영시키기 바라며, 앞으로 다가올 油價自律化 및 石油製品 輸入自由化에 對備, 원만한 業務遂行을 爲해 능동적인 업무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둘째, 石油協會는 業務處理過程에서 公正하면서도 果敢한 결정권을 發揮하였으면 한다.

石油協會 業務中의 하나는 各會員社의 利害關係와 異見을 원만하게 調整하는 것이다. 會員社의 각기 다른 主張을 조정하는데는 規程에 따른 果敢한 이니셔티브의 發揮가 必要하며, 일단 政府로 부터 委任받은 石油製品 輸入 推薦業務도 輸入會員社의 需給事情을 고려, 타당하다고 判斷되면 과감하게 처리하여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運營의 妙를 살려 주었으면 한다.

셋째, 石油協會는 會員社를 爲

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외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會員社의 經營에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

흔히 現代는 「情報時代」라고 한다. 正確하고 신속한 情報의 獲得은 産業社會에서 企業의 승패를 결정하는 重要한 要因의 하나가 되고 있다. 石油協會는 産油國 消息, 現物市場에 관한 情報 等을 수집, 体系的으로 分析하여 會員社에게 신속한 情報를 提供하여 주었으면 한다.

넷째, 石油協會는 精油産業의 現況과 精油産業이 우리 經濟에서 차지하는 重要性을 弘報해 주기 바란다.

메스콤을 통하여 石油의 利用分野, 精油業界의 現況등을 알려 주었으면 한다.

다섯째, 石油協會는 構成員이 5個 精油社와 石油開發公社로 設立된 만큼 精油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 會員社와 同苦同樂 하는 協會가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石油協會의 效率의인 業務遂行을 爲해 힘써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感謝드리며, 協會가 우리 나라 石油産業에 크게 寄與할 것을 期待한다. *

점차 벗어나 精油業界의 意見調整, 政府와의 中間役割과 建議等 精確히 제 구실을 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과거에는 國民들에게 미운 얼굴로만 비추어져 왔던 精油業界를 代辯하는 中間媒體로서의 發展의인 機能은 물론 어느 정도의 制約은 항상 뒤따르고 있지만,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해가 거듭할수록 精確히 履行하여 나가는 것으로 보여진다. 資料의 取集面에서도 이제는 精油會社 職員들은 물론 他部門에서 까지도 協會가 取集 및 提供하는 資料의 精確성과 풍부함에 依存하여도 좋을 때가 된 것 같다.

지금까지 精油業界가 누려왔던 Seller의 市場이 國內外的인 需要 減少와 不景氣로 인하여 또는 業界의 過剩生産施設增設로 인하여 Buyer의 市場으로 변천해 가고 있는 現제에 協會의 先導的 役割이 어느 때 보다도 더욱 精確히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며, 이러한 時期에 現제까지 유지되어 온 現 石油類價格制度에 관한 檢討와 새로운 方法을 研究 摸索하여 이를 業界와 政府에 紹介 내지는 유도하는 작업은 우리 業界가 國內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國家經濟에 미치는 지대한 影響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重要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並行하여 水平的이고 形式的이며 단지 要求에만 依存하는 石油製品消費者들 즉 國民에 대한 弘報에서 벗어나 積極的으로 國民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에게 항상 어필할 수 있는 對民弘報活動으로의 接近이야말로 精油業界의 存續을 위한 適正利潤의 保障과 아울러

**精油業界의 公通分母를 찾고
公同利益을 위해 더욱 精進토록**

— 金 容 來 (京仁에너지業務部·課長) —

國內的으로나 國際的으로 어려운 시기에 創立한 이래 만 2년 동안 協會의 設立 目的이나 趣旨에 크게 어긋남이 없이 순조로운

航海를 계속하고 있는 중 두 뜻을 맞이하는 石油協會에 眞心으로 祝賀를 드린다.

協會가 이제는 創立初期時節을

關鍵이 된다 할 것이다.

最近의 世界에 너지産業은 그 동안 石油에만 의존하여 왔던 너지 供給體系를 탈피하고 代替에 너지를 開發하여 産業化하는 綜合에 너지産業으로 變遷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國際趨勢를 우리라고 외면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協會에 대한 期待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長期的인 眼目을 가지고 精油業界의 장래를 위하여 현재의 石油産業에서 미래의 綜合에 너지産業으로 轉換되어 가는 過程에서 中樞的인 役割을 協會가 하여 줄 것이 要望된다.

과거 업계의 活動은 항상 個別的인 것에 불과하였으나, 協會가 탄생된 이후에는 求心點이 이루어졌으며, 이 求心點의 活動에 따라서 업계의 盛衰가 좌우된다 하여도 지나친 誇張은 아닐 것이다. 앞으로의 國際原油事情은 中東에서의 분쟁 등 多變하는 國際情勢로 인하여 누구도 確實한 予測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國內油類市場마저도 서서히 變모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 수록 業界는 業界대로 活動을 일층 강화하여야 하겠지만, 精油業界는 協會의 重複을 피하고 統一된 課業遂行을 통하여 未來를 指向한 業界의 活性化를 기대하는 것이다.

무릇 모든 生物은 적어도 자기 種族 또는 자기만은 영원히 生存키를 원한다. 그러나 現代産業社會는 이를 容納치 않고 있다. 共生만이 自生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따라서 共生키 위하여는 共生基底인 共通分母를 찾아야 하며, 業界는 이 공통분모

의 역할을 협회에 一任하고 협회는 公同분모로서의 역할을 最大한 찾아 共同利益을 위하여 더욱 精進하여 業界의 調和있는 發展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여러 명의 演奏者가 좋

은 양상בל을 이루기 위해서는 各 연주자를 단련시켜 훌륭한 指揮를 하여 양상בל을 聽衆에게 충분히 傳達하는 役割이 곧 協會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

적은 人員으로 충실히 일했으나 아직 반성하고 해야할 課題도 많아

— 金 喆 慶 (雙龍精油 수급수송부) —

4 차례의 國內 油價 變動을 겪으면서 이제 막 햇 병아리의 「결음마」를 시작한 協會의 그 동안의 수고에 대해 會員社의 一員으로 축하를 보낸다.

「脫石油」에너지 정책으로 石油類 제품의 수요 감소와 경영악화의 도상에서 간간 힘을 다 쓰고 있는 精油業界의 현안 문제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精油社 스스로가 타개하기 위해, 또한 18년간의 韓國 精油産業의 근간의 경영 조건 하에서 기업 수익의 악화와 침체 상태를, 기존 觀念에서 發설되는 精油産業의 好況(?)의 속사정을 國民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지난 80년 8월 2일 動資部長官의 設립 허가를 얻어 그 해 9월 29일 업무 개시를 한 石油協會는 지난 두해동안 會員社 상호간의 이해와 우호증진을 위해, 石油 및 石油産業에 관한 지식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國內의 石油産業에 관한 정보 수집·교환·분석·평가·발간 등 조사 연구 업무 및 石油産業에 관한 弘報活動과 보고 업무를 많지 않은 인원으로도 충실히 수행 해

나온 것에 대해 稱찬 박수를 보낸다.

작년 여름 精油社간의 휘발유 과열 판매 경쟁으로 다소간의 물의가 야기될 즈음에도 精油社間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숨은 노력을 하였으며, 國內 石油類 제품 가격 인상 조정 시에도 유가 변동이 國民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으로 감소시키는 문제와 精油社들의 어려운 문제점들을 융화시켜 나가는 데에 最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81년 1월 1일부터 석유 제품의 수출입추천업무와 82년 7월 1일부터의 原油輸入추천업무를 協會가 수행하면서 수급업무에 차질이 없었던 것만 보더라도 이제 協會는 「결음마」時期를 마쳤다고 본다.

또한 研究 자료 조사 및 弘報 업무에서도 2년동안 출간한 도서가 8권이 되는 것으로도 그 努力을 알 수 있다(정기 간행물은 제외). 그 중에서도 OECD국가 의 석유 제품 가격 정책을 다룬 「Pricing Petroleum Products」 原書를 긴급 入手하여 國內 油價管理制

度 개편 작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 번역·출간한 순발력은 높이가 평가하고 싶다. 또한 「82년 石油年報」책자는 다소 편집상의 산만함과 내용의 진부함이 보였지만, 처음 출간하는 책자로서는 방대한 집약이었다.

그러나 선진제국의 제도적 우수성을 따라 갈 수 있는 장치적 보완 및 더 많은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야겠다.

단순적 대 정부 수급 현황보고에 그치지나 않았는지, 요식적 수출입 추천을 해주거나 自社의 이해 관계 때문에 야기되는 需給 조정의 어려움을 현실적 當爲性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이제 창립 2주년을 맞아하면서 뒤 돌아볼 때라 생각 된다. 매달 2천부씩 발행되는 「石油協會報」가 내용적으로 알차져 가는 단계에 있지만, 얼마나 尙國民 弘報활동 자원으로 이용되는가의 뒷 정리를 해 볼 때다. 청와대 비서실, 주부클럽 연합회, 대학 도서관 등 폭넓게 배부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점만 대두시켜서 실질적 國民弘報에는 미약하지 아니했는가 더듬어 볼 때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뇌리에 남아 있는 선입관념 즉 精油業界는 악덕 기업이며, 물가 인상을 부채질하며, 부당 이익을 국민들로부터 취한다는 생각을 어떻게 버리게 할 것인가. 脫石油 에너지 政策에 대비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정리·분석과 정책수립을 해 나가는 「데이터뱅크」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공정한 제3자의 위치에서, 대국적 견지 하에서 精油社의 악화된 경영 체질을 어떻게 회복시키며, 국민 경제의 부담

을 어떻게 감소 시킬 것인가. 原油 導入先의 多邊化를 위해 原油 供給의 안정화를 위해 민간 외교 지원의 內實化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 단순한 外國原書 번역작업에만 그치는 출판 업무가 아니라, 국내적 현실에 부합되면서 좀 더 체계적인 연구 개발 업무의 수행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등등 많은 課題들이 쌓여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 기본 업무의 滿足으로 자칫 무사 안일 위주의 업무체질로

변경되어 존속 가치의 상실을 가져오는 결과가 도래되지만 아닐까 하는 지나친 노파심을 떨쳐 버리면서 精油 會員社들의 친선 테니스 대회뿐만 아니라, 全會員 社들의 우호 증진의 기회를 마련했으면 한다.

아무쪼록 제3자의 위치에서 연구 개발 업무에 충실하면서 精油 業界의 고통을 진단·해결하며 異 見 조정에 큰 역할을 하는 협회가 되어 국민적 신뢰를 받자.*

民間主導 경제체제에 대처할 能力을 배양하도록

— 崔 日 文 (動資部·油政課) —

國內 五個 精油社를 母體로 充足한 大韓石油協會가 이제 創立 2周年을 맞아 먼저 眞心으로 祝賀드린다.

産業의 가장 重要한 에너지源으로서 經濟를 左右할 수 있는 石油問題와 關聯하여 精油社의 意見을 綜合 반영하는 窓口로서 充分한 役割을 다하여온 石油協會 모든 任職員의 勞苦에도 감사한다.

필자가 動資部에 發令받아 근무를 하기 시작한 것도 거의 2년이 되어 가므로 그 동안 생소했던 환경에 適應하면서 客觀의 眼으로 純粹하게 協會를 주시해 왔던 것 같다.

지난 80年 國內 經濟가 또다시 石油波動으로 어려운 與件에서 大韓石油協會가 充足하여 着實하게 성장하여 왔고, 또 設立目的을 充

분히 반영하여 단단한 基盤을 다져 왔다고 보여진다.

검은 색깔부터 연한 밤색에 이르기까지 유리관 속에 든 原油試料를 보고 처음 接觸한 이 검은 液體에 神秘함을 느꼈다. 검은 색깔은 모든 色의 集合體이고 무한한 潛在力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 색깔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인지 現代社會에 세가지 「블랙파워」가 存在한다고 말한다. 黑人, 커피, 原油가 그것이다.

모두가 熱帶의 異國性을 느끼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와 가까워져 있는 實體들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原油가 미치는 影響力이 얼마나 팽배하게 될지는 아무도 豫則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64년에 最初로 精

油工場에서 힘찬 불길을 솟게 한以後, 精油産業을 통제하는 모든機能을 政府에 맡겨 왔었다. 제 1次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基本産業으로 精油産業은 經濟發展의 先驅者 役割을 해왔으며, 大企業으로 부터 國民生活에 이르기까지 直接또는 間接으로 至大한 影響을 미쳐 왔던 것이다. 이제 하루에 79萬배럴의 精製能力을 가진 國內 精油業界의 열굴인 大韓石油協會의 機能과 役割이 점차 活潑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艱難한 경기침체 속에서 稼動率 低下, 수급의 不安定性, 油價體制의 改善, 各會員社間의 利害關係등을 政府, 精油社, 國民과 함께 石油協會가 고민해야 할 과제는 많다.

創立後 二年동안 정착단계에서 서서히 成長段階로 접어든 協會의 發展을 기대 하면서 바라고 싶은 점을 몇 가지 들어 보겠다.

첫째, 政府와 國民을 잇는 다리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政府가 수립한 政策과 그 施行過程에서 國民生活의 興件과 얼마나 反映되는지를 協會는 여러 測面에서 관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過程의 모든 面에서 國民의 理

解가 미치지 못하는 死角部分을 連結시켜 주고, 實經濟 狀況과 附合되지 않는 點은 소신있게 建議할 수 있는 積極性이 必要하다고 본다.

둘째, 協會自體能力을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國內經濟가 資本主義경제의 自由競爭原理에 따라 점차 官 주도에서 民間주도형으로 유도되는 國內 實情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처할 能力 배양은 바람직한 일인 것이다.

政府위주의 石油정책 實段階로 부터 精油社와 關聯단체를 통해 수행능력과 역할이 요구되어 진다면 그에 依한 欠점과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分析해 보아야 할 일이다.

물론 이에 是 制度的장치가 선행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겠다.

끝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직한 協會가 되어주었으면 한다.

內的인 잠재能力의 蓄積과 外的인 신뢰性을 協會가 인정받을 때, 무한한 발전과 도약이 보장되리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大韓石油協會의 創立을 頌祝하며 무궁한 發展을 기원한다. *

잡기도 전에, 그리고 경험도 쌓기 전에 精油業界의 經營위기 속에서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시련극복에 보조를 같이 하였다.

이러한 艱難한 狀況下에서 石油協會가 오늘의 면모와 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會員社들의 아낌없는 協조와 정부당국의 지도편달의 결과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 동안 石油協會는 新設협회로서 배워가면서 일해야만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試行錯誤도 없지 않았고, 미숙한 일처리도 많았을 것이다. 반면「協會」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 있어서 艱難함과 고충도 많았다. 石油協會만은 國民들이 기존협회에 대해 갖고 있는 좋지 않은 認識이나 이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하였으나, 결국 「協會」의 특수성으로 인해 좌절과 실의에 빠지는 일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制約이 많고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協會는 精油産業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微力이나마 次善의 노력은 다 했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精油業界의 權益伸張이 얼마나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政策代案을 政府當局에 제시했으며, 精油産業에 대한 國民들의 認識이 얼마나 提高되었으며, 精油産業에 關한 調查研究體制는 얼마나 확립되었느냐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協會가 官僚化되어 가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도 들리고 있다. 協會는 이러한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격려의 체적으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創立 2 周年을 맞이하여 단순한 年例行事가 아니라 協會의 發

지금까지의 經驗을 反省하고 이를 協會發展의 契機로 삼아야

— 具 翼 謨 (石油協會 · 弘報課長) —

石油協會가 創立 2 周年을 맞았다.

돌이켜 보건대 지난 2 년간은 國家的으로 激變期였고, 또한 精

油産業 20餘年史에서도 未曾有의 試鍊期였다. 公교롭게도 石油協會는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發足되어 協會機能이 자리

展, 나아가 우리 나라 石油産業의 發展을 위하여 協會와 會員社 뿐만 아니라 關係당국이 함께 지난 2년간의 協會業績과 시행착오를 분석·평가하고 協會의 進路에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協會人으로서 그 동안 느낀 바를 여기에서 몇가지 要約해 보고자 한다.

첫째, 協會機能의 限界性問題다. 우리 나라의 協會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協會가 官主導型으로 설립되고 官의 監査와 監督을 받으면서 會員社의 會費로 운영되고 會員社의 權益을 보호·신장시키고 代辯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어느 때는 二律背反의인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協會의 業務가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 業務를 수행하다 보면 줄타기와 같이 어려울 때도 많다. 따라서 協會는 業務遂行에 있어서 獨自性이나 裁量권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면서도 會員社와 政府當局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기가 십상이다.

또한 協會자체도 이 限界性을 너무 意識하게 되면 協會의 行動半徑이 좁아지고 業務治動이 위축·약화될 것이다.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精油業界를 위하고 石油産業의 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業務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官의 協會에 처한 認識의 問題다. 극소수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當局者들의 協會에 대한 편견적인 認識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協會를 委任業務와 協助業務를 주로 하는 산하보조기관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될 것이다. 協會를 건전한 政策建議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또 그러한 方向으로 育成·發展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고 성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물론 協會자체도 능력배양과 인재양성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사회는 官의 힘이 막강하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官의 힘에 너무 위축된 나머지 官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차 權限과 裁量權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보여진다.

셋째, 石油關係資料의 지나친 秘密主義이다. 精油産業은 우리나라 에너지需要의 약 60%를 공급하고 있는 國家基幹産業이다. 따라서 安保上 비밀을 유지해야

할 資料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點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石油關係資料에 관한 한 政府當局에서 지나치게 기밀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각종자료를 選別해서 國益에 저촉되거나 精油業界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료를 개방함으로써 많은 귀중한 資料들이 死藏되지 않고 研究機關 및 有關機關이나 일반 資料需要者들이 有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協會는 公益의 테두리 안에서 어차피 業界의, 業界에 의한, 業界를 위한 協會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듯이 協會는 業界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다. 바꾸어 말하면 業界의 지원과 협조 없이는 協會가 발전될 수 없다. 協會가 할 일을 못하거나, 잘못된 方向으로 갈 경우 業界는 방관하거나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是正하도록 指導해 주어야 할 것이다. 倍前의 協調와 支援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協會에 대한 작은 激勵와 配慮에 인색하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부정·부패·인플레心理를 追放하자